

설화와 가족으로 소통시킨 역사와 현실

— 고은주 장편소설 『신들의 황혼』론 —

김 수 미*

차 례

1. 머리말
2. 『신들의 황혼』의 구조와 설문대할망 설화의 의미
3. 역사와의 소통과 가족의 재발견
4. 맺음말

1. 머리말

4·3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이루어진 4·3문학의 양상은 고발과 증언 방법을 모색하는 저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동안 4·3문학 작가들은 역사의 문학화라는 거대한 숙명 앞에서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현기영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것”¹⁾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문제 등 복잡다단한 문제의 핵심에 있었다.

잘못된 과거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4·3희생자의

*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1) 현기영, 『4·3을 탐구하면서 재발견한 몇 개의 화두들』, 『제주작가』 74호, 실천문화사, 2000, p. 65.

냈을 위로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역사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4·3문학이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설화와 가족을 매개로 역사와 현실을 소통시킨 고은주²⁾의 『신들의 황혼』³⁾은 4·3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고은주의 『신들의 황혼』이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4·3문학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중수난이나 피해의식, 좌우이데올로기 등을 다루던 심각한 증언문학 형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작가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고발과, 상처의 현재적인 양상을 그려내는 데 주력한 제주의 4·3문학 작가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문학의 보편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가족사를 끌어들이어 가족의 상처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는 문학적 형상화로 이루어내고 있다. 또한 설문대할망 설화를 삽입하여, 역사와 현실의 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4·3을 한국현대사의 당당한 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4·3에서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현대사의 맥을 특정 인물의 삶을 통해 짚어내는 가운데, 제주설화와 현대여성의 문제를 겹치고 확장시킨다. 이를 통해 설화와 역사와 현재를 이어 우리 문학의 보편적인 가치를 찾아 나서면서, 4·3문학의 영역을 확대시켰다는 점이 이 작품을 주목한 이유이다.

이 글은 제주의 대표적인 설화인 설문대할망 설화와 질곡의 현대사를 겪은 아버지 세대, 현재를 살아가는 후세대의 삶을 각각 보여주는 삼중구조가 어떻게 역사와 현실의 소통을 이어나가는지에 관심을 갖고 씌어졌다. 이 글에서는 먼저 작품과 작품에 삽입된 설화의 구조를 각각 분석한

2) 고은주는 1967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1990년에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5년 『문학사상』 ‘진인상’을 통해 단편 『떠오르는 섬』으로 등단하여 1999년에는 『아름다운 여름』으로 제23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고, 『신들의 황혼』(문이당, 2005)은 작가의 다섯 번째 장편소설이다. 이외에 장편소설로 『아름다운 여름』(민음사, 1999), 『여자의 계절』(문학사상사, 2000), 『현기증』(이룸, 2003), 『유리바다』(이가서, 2004), 『시간의 다리』(창해, 2005)가 있고, 동화 『너는 열두 살』(명예의전당, 2002), 소설집 『작테일 슈가』(문이당, 2004) 등이 있다.

3) 고은주, 『신들의 황혼』, 문이당, 2005.

다. 설문대할망 설화의 의미를 밝히고 작품과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제주 4·3과 한국전쟁을 겪고 살아온 이들의 삶과, 현대여성의 삶을 보여주면서 근원적인 가치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소통의 끈을 제시한다. 가족사와 설화의 삽입을 통하여 숨겨져 있던 역사의 현장을 현재로 끌어와 소통하는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신들의 황혼』의 구조와 설문대할망 설화의 의미

2-1. 『신들의 황혼』의 다층적 플롯

『신들의 황혼』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12개 장이 작중화자 ‘나’의 이야기이고, 11개 장이 ‘나’의 아버지인 ‘그’의 이야기, 1개 장이 ‘나’의 어머니인 ‘그녀’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설문대할망 설화는 외할머니와 작중화자 ‘나’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12개로 분절되어 삽입되어 있다.

설문대할망 설화는 홀수 장 앞에 삽입되어 ‘그’와 ‘나’의 시점을 오가는 과거와 현재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홀수 장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그’의 이야기가, 짝수 장에는 현재시점으로 ‘나’의 이야기가 같은 비중으로 번갈아가며 제시되어 설화-역사-현재라는 삼중구조를 이루고 있다.

각 장별로 이 작품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삼천 병사 / ‘그’ / 30만의 섬사람 중에서 3천 명이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0년 9월 1일에 제주항 산지부두에서 LST 수송선에 승선을 한다. ‘그’는 삼천 병사 중 한 사람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②섬지코지 / ‘나’ / 30대의 미혼인 ‘나’는 현과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다.

③바람의 뿌리 / ‘그’ / LST 수송선 안에서 ‘그’는 4·3의 광풍을 회상하고, 자신을 이곳까지 몰고 온 역사의 바람을 생각한다. 죽지 않으려면 질러야 하

는 냉혹한 세상을 건너온 ‘그’는 무고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안다.

④인연 / ‘나’ / 오사카에서 유미 언니와 작은외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4·3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된다. 옛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가족의 과거사가 ‘나’의 삶으로 들어온다.

⑤어디로 가는가 / ‘그’ / ‘그’는 제주도에서 출발하여 진해에서 해병훈련을 받고, 부산으로 떠났다가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다.

⑥오사카 생야구(生野區) / ‘나’ / 개방적인 작은외할아버지의 혈육에 대한 집착은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 고생하는 부모를 떠올리게 하고,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⑦적색 해안 / ‘그’ / ‘그’는 7만5천명의 유엔군 제7합동 상륙기동부대의 일원으로 패잔병 수색 작전에 투입된다. 나약한 적의 모습에서 연민을 느끼다가 마음을 다잡고, 104고지·연희고지를 점령한다.

⑧돌 죽은 밭 / ‘나’ / ‘나’는 제주도에서 엄마를 만나 과거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 4·3 때의 이야기를 묻는다. 그리곤 임신 사실을 알린다.

⑨왜 가야만 하는가 / ‘그’ / 섬을 떠난 ‘그’는 전쟁의 맨얼굴을 보았고, 경인 지구 작전을 종료하고 난 뒤 인천항으로 돌아온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허기, 꿈과 현실의 경계가 지워지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가족을 위해 견뎌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⑩관습 / ‘나’ / 헌법보다 관습이 앞서는 현실을 원이 선배와 이야기하다가 ‘나’의 가족에 대해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원이 선배에게 놀란다. 엄마는 전화를 걸어와 아이의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엄마에게 묻는다.

⑪숨비소리 / ‘그녀’ /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로 피난 온 사람들은 민가에서 지냈다. 4·3중에 아버지를 잃은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한 일은 세상에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 마을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⑫타인의 가족 / ‘나’ / 임신을 하고서도 결혼은 할 수 없다는 ‘나’의 말에 아버지는 뺨을 때리고,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던 시절의 얘기를 한다.

전쟁기념관을 다녀오면서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살아야했던 얘기를 한다.

⑬새로운 적 / ‘그’ / 전쟁은 중국의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변모했다. ‘그’가 떠나고 난 뒤 ‘그’의 두 형도 입대했다. 끝없는 고향생각은 새로운 적이었다. ‘그’는 살아남아 학업을 계속하고, 이 전쟁의 배경과 진행과정과 전망을 아는 지식인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⑭눈꽃 / ‘나’ / 원이 선배와 남다른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의도로 맞게 된 셋째 언니의 등장이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⑮폐잔병의 행진 / ‘그’ / 1950년 12월 ‘그’의 부대는 마지막까지 아군과 피난민의 철수를 돕다가 미군 수송기를 타고 부산항에 가서, 3개월 전 승선했던 LST 수송선을 탄다. 부산항까지 행군을 하면서 피난민들을 통해 삶에 대한 활력과 의지를 본다.

⑯이복 언니 / ‘나’ / 앞세대가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싶어했던 이복언니와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가족들의 과거, 4·3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나’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삶을 살고 싶어했다는 걸 깨닫는다.

⑰도돌이표 / ‘그’ / ‘그’는 1951년에 임진강 유역의 장단 지구에서 후퇴와 반격을 반복했고, 두 형의 전사 소식을 듣는다. 현실감을 조금씩 잃어가다가 자신이 이제는 부모님의 유일한 아들이므로 반드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⑱말할 수 없는 것들 / ‘나’ / 아이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서, 미혼의 임신을 남들에게 숨기기 위해 대학원에 등록한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 결혼에 대해 제안하는 원이 선배에게 ‘나’는 임신사실을 알린다.

⑲지삿개 / ‘그’, ‘그녀’ / ‘그’는 대구 육군 경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재무 하사관이 된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혼란의 시기에 ‘그’는 눈먼 돈을 삶의 재건을 위해 모은다. 어린 시절 보았던 ‘그녀’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

⑳달맞이 고개 / ‘나’ / 가족행사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간 ‘나’는 직접

아버지의 지나온 삶의 과정을 물어보고, 결혼할 당시의 얘기를 듣는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흔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가족에 대한 맹목적이고도 순수한 열망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①집 / '그' / '그'는 처자식이 생기면서 세상에 대한 맹렬한 욕구를 갖게 된다. 도시의 활력 속에서 자신의 삶을 꾸리기 위해, 제주를 떠나 부산에서 의류업을 하면서, 자식들을 낳고 조카들까지 거두기로 한다.

②테란의 드랍쉽 / '나' /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맞아 모이는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예전과 다른 사고를 갖게 된다. 아버지의 과거와 배 속의 아기, 원이 선배와의 관계 등 설명할 수 없어도 이해하게 되는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된다.

③칠 남매 / '그' / '그'와 '그녀'가 현시점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전쟁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칠남매를 키우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한다.

④물장오리 / '나' / 어른들이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외할머니가 들려주던 설문대할망 전설을 떠올린다. '나'는 가족사진을 찍으면서 가족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불러일으킨 배 속 아기가 고맙다.

개요에서 보듯이 짝수 장에는 법대를 졸업하고 국책은행에 근무하는 서른세 살의 미혼 여성 '나'의 현재 삶이 그려져 있다.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문득 돌아보게 된다. 아기를 낳을지 말지 고민 중에 떠난 오사카에서 유미언니, 작은외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 와중에 가족의 과거사를 알게 되고, 그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 자신도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무관하다고 생각해왔던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그 증거로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것이다.

홀수 장에는 해병대 4기로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그'가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여 가족을 이루는 과정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그'는 43의 광풍을 겪고, 지원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한 삼천 병사 중 한 사람이다. 전쟁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허기, 꿈과 현실의 경계가 지워지는 힘든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가족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두 형이 전사하였으므로 자신이 부모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되새긴다.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이던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처자식이 생기면서, 세상에 대한 맹렬한 욕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은 조카들까지 거두어 가족을 위한 최선의 삶을 일구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은 다층적 플롯은 소설의 이야기 소통구조를 자유롭게 열어준다. 소설속의 인물들이 겪어온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다. 작품의 전개를 조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주의 대표적인 설화인 설문대할망 설화, 과거 질곡의 역사를 겪고 오늘의 풍요로운 현재를 만들어낸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와 역사에 대해 무관심한 현대대의 이야기의 교차는 그들의 소통과 결합을 구조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고은주는 「작가의 말」에서 “인천 상륙 작전과 연희 고지 전투, 제주 4·3의 비극과 설문대할망 설화, 1960년의 부산과 2000년대의 서울, 오사카, 제주의 풍경 등을 펼쳐 화석화된 현대사에 생기를 불어넣고 단절된 세대 간의 봉합을 시도”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2. 설문대할망 설화와의 연관성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은 한라산, 오름, 섬, 기암 등 실질적인 제주의 지형을 만든 천지개벽신화의 巨神이며, 민간신앙의 대상이기도 했다. 설문대할망 설화⁵⁾는 제주 전 지역에서 구전 전승되어 제주도 사람이면 남녀노

4) 고은주, 위의 책, p. 6.

5) 설문대할망에 대한 연구로는 문영미의 논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대할망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1960-70년대 장주근(「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임동권(「설문대할망 설화考」, 『제주도』 17, 1967), 장덕순(「한국사상대계」

소 할 것 없이 알고 있다. 설문대할망은 예전부터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키가 대단히 큰 거신(巨神)이었다. 할망의 큰 외모와 힘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일화들이 설화의 주 내용이다. 『신들의 황혼』에서 설문대할망 설화는 화자 '나'와 외할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들의 황혼』에 나타난 설화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육지에서 흙을 날라 제주를 만들고 오래도록 살았던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우면 다리가 관탈섬에 걸쳐지는 거인이었다.

② 설문대할망은 설문대하르방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자기들의 큰 몸을 이용해서 하르방이 고기를 몰아 할망의 하문에 고기 떼를 가두었다. 고기를 에워 잡은 곳이 설문대 꽃이고, 그 곳이 십지코지다.

③ 설문대할망이 치마폭에 흙을 담아 여섯 번 오가며 섬을 만들었는데, 일곱 번째 담아 온 흙으로 만든 산이 한라산이고, 치마 사이로 샌 흙이 오름을 만들었다.

④ 치마를 빨기 위해 한라산 위에 앉아서 오른발은 마라도에 왼발은 성산일출봉을 딛고 지귀도를 빨래판으로 삼았다.

⑤ 할망이 걸터앉기엔 한라산 끝이 뽕죽해서 봉우리를 떼어 던진 것이 산방산이다.

⑥ 성산포와 연결되어 있었던 우도는 할망이 일출봉과 식산봉에 양다리를 걸치고 오줌을 누자 떨어져 나가 섬이 되었다.

⑦ 성산 일출봉에는 등경돌이 있고, '고지렛도'에 있는 모자 모양 바위

I,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973) 위주의 소논의로 시작됐다. 이후 이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재영(『한국설화문학연구』, 숭실대학교출판부, 1984), 이성준(『설문대할망 설화연구』, 『국문학보』 10호,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1989), 강진욱(『'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호, 1993), 허춘(『선문대 할망 설화 논고』, 『한국문학의 통시적 성찰』, 집문당, 1993)을 중심으로 설문대할망의 존재의미 연구가 이뤄졌다. 이밖에도 거녀담의 일환으로서 포괄적인 거인설화의 연구성과가 김영경(『거인설화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0), 권태호(『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 유형 연구』, 경기대 박사논문, 1997)에 의해 논문화되는 등 다각도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는 할망이 썼던 모자이며, 큰 바위가 띄엄띄엄 솟은 곳은 할망이 술을 걸어 밥을 해먹은 바위이다.

⑧ 할망은 사람들에게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는 조건으로 명주 백동이 드는 명주옷을 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명주 한 동이 모자라 다리를 놓다가 그만뒀다.

⑨ 할망에게는 오백 아들이 있었는데, 할망이 밖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 설문대 하르방이 죽을 끓이다가 실수로 술에 빠져 죽었다.

⑩ 막내아들은 죽을 먹지 않았고, 아버지의 살을 먹은 형제들과는 함께 살 수 없다며 서귀포 앞바다에 가서 울다가 외톨개가 되었다. 형들도 아버지를 그리며 울다가 돌이 되었다. 할망은 슬퍼하며 피눈물을 쏟았는데 한라산의 붉은 철쭉꽃이 그 눈물의 흔적이다.

⑪ 흉년이 든 어느 해, 할망은 사람들 몰래 밤에 혼자 멀리 떠났다.

⑫ 설문대할망은 큰 키를 자랑하려 물장오리에 들어갔다가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신들의 황혼』에 삽입된 설화의 결말은 두 가지이다. 설문대하르방이 실수로 죽 술에 빠져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죽었다는 화소(⑩) 이후에, 설문대할망이 멀리 떠났다는 설(⑪)과 물장오리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설(⑫)이다. 작가는 설문대할망 설화 중 ⑫와는 다른 물장오리 결말의 변용에 큰 관심을 보인다.

최근에 다시 찾아본 설문대 할망 전설에는 할망의 최후가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었다. 죽을 끓이다 가마솥에 빠져 죽은 이가 설문대 하르방이 아니라 할망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흉년에 어디론가 떠나 버렸다는 이야기가 가장 적었다.

어쨌든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물장오리의 결말에는 또 다른 끝이 덧붙여 있는 경우가 있었다. 밑이 터져 있는 물장오리는 바다 속까지 뚫려 있어서 설문대 할망이 그 물을 통해 용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였다.⁶⁾

위의 변용된 결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생명’을 거부하지 않고, 사회의 관습에 맞서 미혼모로 살기로 결심한 ‘나’ 즉, “삶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겁 없이 뛰어들 작정을 한”⁷⁾ 작중화자 ‘나’가 맞닿아 있는 삶의 선택을 새로운 세계의 열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설문대하르방의 자식들을 위한 희생은 그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희생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비록 받을 헛딘는 실수로 인한 희생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숙명처럼 인식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들의 황혼』에서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거친 삶을 헤치며 살아나가는 아버지의 운명도 그의 선택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가족들을 위한 희생의 짐이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설화 삽입내용과 소설의 내용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들의 황혼』은 19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가운데 네 번째 곡에서 제목을 따온 것이다. 바그너의 작품 대부분은 오페라이다. 그는 작곡뿐만 아니라 대본도 쓰고, 연출도 하며 극장까지 스스로 만든 후원자이기도 했다. 바그너 작품의 대다수는 독일에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전설이나 신화를 제재로 하고 있다. 그는 영웅 지그프리트의 활약을 그린 서사시 ‘니벨룽의 노래’를 토대로 하여 ‘니벨룽의 반지’를 창작했다. 4부 ‘신들의 황혼’의 제1서막 첫 장면에서는 세 명의 눈(운명의 여신)들이 운명의 밧줄을 돌린다. 그들은 각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한다.⁸⁾

고은주의 소설 『신들의 황혼』에서 오페라가 ‘신들의 종말’을 의미하는

6) 위의 책, p. 268.

7) 위의 책, p. 268.

8)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는 총 4부작으로 각각의 상영시간이 4시간 내지 5시간이나 되고, 총 공연시간만 18시간에 이른다.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그프리트’, ‘신들의 황혼’이 보통 4일에 걸쳐 상영된다. 1부 ‘라인의 황금’은 절대 권력을 둘러싸고 신과 거인족, 난쟁이 니벨룽족이 갈등을 벌이는 이야기, 2부 ‘발퀴레’는 신(神) 보탄의 딸인 9명의 여천사 발퀴레의 이야기, 3부 ‘지그프리트’는 두려움을 모르는 영웅 지그프리트가 난관을 딛고 브륄힐데의 사랑과 반지를 얻는다는 이야기, 4부 ‘신들의 황혼’은 영웅 지그프리트를 둘러싼 음모와 갈등, 배반과 죽음 등을 다루고 있다. (<http://valhalla.byus.net/>, <http://blog.empas.com/letitbel53/19099066> 참조)

라그나뢰크 신화에 기대고 있듯 설화-역사-현재의 삼중구조를 토대로, 미래를 새롭게 이끌어 갈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조망하고 있다. 바그너의 오페라가 복선으로 깔고 있는 운명의 과거-현재-미래의 구조와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신들의 종말을 의미하는 ‘신들의 황혼’이라는 제목에서 신들은 굴곡진 우리 현대사 속에서 오늘의 삶을 일궈낸 부모 세대를 상징한다. 즉, 혹독한 조건 속에서 삶을 일구어내고 오늘날 우리를 창조해 낸 부모 세대, 그들의 황혼은 전쟁과 이념 속에서 살아남아 목숨을 바치고, 지켜 쌓아온 것들로부터 도전받는 삶,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의 운명을 상징한다. 새로운 세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종말을 받아들이는 신들의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또다른 세계의 희망이 솟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수많은 제주설화들 중 왜 설문대할망 설화인가라는 점이다. 설문대할망의 설화에서는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는 화소가 빠지지 않는다.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를 놓던 설문대할망의 설화를 삽입함으로써, 작가는 아버지의 과거 역사와 작중화자 ‘나’의 소통을 시도한다. 이는 역사에 무관심한 채 오늘을 사는 현세대와 역사의 질곡을 헤치며 살아온 전세대의 소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개인의 역사와 공식적인 역사의 다리를 놓는 의도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예술 장르가 그러하듯이 문학은 여러 가지 장치와 기법을 동원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역사 이전의 인류사를 신화 속에서 찾아내듯이, 작가는 ‘나’와 ‘그’의 이야기와 함께 신화의 에너지인 설문대할망의 설화를 삽입함으로써 그들 삶의 근원을 찾고자하는 노력을 보인다. 주장하여 관철시키고자 하는 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신들의 황혼』에서 설문대할망 설화를 삽입하고 있는 것이다.

3. 역사와의 소통과 가족의 재발견

지난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데 이어, 2003년 10월에는 4·3진상보고서가 나왔고,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대통령에 의한 국가차원의 공식사과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는 대통령이 4·3위령제에 참석하기도 했다. 4·3을 둘러싼 상황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문학에서도 새로운 모색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모색의 단계'⁹⁾에서 씌어진 고은주의 소설 『신들의 향혼』¹⁰⁾속에서 4·3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제주작가들의 그것과는 차이를 가진다. 감정적인 수난상의 반복이나 피해를 당한 도민의 입장을 문학화하여 비극성을 드러내거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의 의지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발 물러서서 당시의 비극적인 사건을 지금 세대의 눈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부녀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4·3에서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맥을 짚어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와 가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3-1. 불신 속에서 살아남기

제주 4·3의 살육에서 살아남아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던 제주 청년

9) 김동윤은 4·3문학에 대한 시기구분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는 첫 번째를 4·3이 발발한 시점에서부터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이 발표되기 전까지로 나누어 '비본질적·추상적 형상화 단계'(1948~1978년), 두 번째를 『순이 삼촌』이 발표된 시기부터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1978~1987년), 세 번째를 6월항쟁 이후 4·3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로 '본격적 대항담론의 단계'(1987~1999년), 네 번째를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나누고 '새로운 모색의 단계'(2000년~)로 각각 명명했다. (김동윤,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pp. 39-40.)

10) 작가 고은주 부모의 고향은 제주도이다. 그래서 자전적인 요소가 여러 군데 보이는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뿌리 찾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중 한 사람이 작중화자인 ‘나’의 아버지이다. 『신들의 황혼』은 젊은 여성 ‘나’의 이야기와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삼천 병사 중 한 사람인 ‘그’의 이야기를 교차하여, 그녀의 부모가 살아낸 세상과 ‘나’의 현실세계를 함께 보여준다.¹¹⁾

섬은 이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왜 가야만 하는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 알고 싶지도 않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제주 사람들의 목적이나 명분이 육지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이제 더 이상의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는다.¹²⁾

내일은 상상도 하기 싫어 그는 먼 하늘로 고개를 돌렸다. 조명탄으로 흰한 서쪽 하늘을 바라보니 불현듯 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초토화 작전으로 제주도의 증산간 마을이 불타던 나날들……. 한라산 쪽의 그 마을들이 밤새 붉게 타오르는 모습을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었다. 해안 마을에 살았던 그는 다행히 그때 불길을 피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다.¹³⁾

중학교에 들어간 ‘그’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비도 열심히 벌고 싶은 부지런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곧 4·3의 회오리에 휘말려 죽창을 들어야 했고, 이듬해에는 학교 복구를 위해 삼을 들어야 했으며, 또 그 이듬해에는 전쟁에 떠밀려 총을 들어야만 했다. ‘그’의 아버지는 지식인은 다 죽는 것 같이라며 학교를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는 세상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고 싶은, 지식인을 희망하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그 꿈을 꼭 이뤄내기 위해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그의 목표가 된다.

이 소설에서 ‘그’의 이야기는 1950년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해병대 4기 생으로 입대한 ‘그’가 LST 수송선에 승선하는 것으로 서두가 시작된다.¹⁴⁾

11) 소설 전체에서 ‘그녀’가 화자가 되어 서술되는 에피소드가 단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그녀’는 ‘나’의 어머니이다.

12) 고은주, 앞의 책, p. 112.

13) 위의 책, pp. 86-87.

14)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7월 8일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 수송선은 해방되던 해 가을에는 미군을 싣고 왔고, 동시에 서북청년단이며 국방 경비대 같은 육지의 토벌대를 싣고 온 배이며, 점령군과 진압군을 차례로 실어 와 섬 전체에 죽음을 불러온 배인데 이 배에 자원군으로 승선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학생들이어서 학도호국단을 통해 일주일에 서너 시간씩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왔을 뿐 제대로 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병사들이다. 이들은 토벌대를 따라다니며 게릴라 소탕을 도우면서 죄 없는 양민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다. 그들에게는 4·3의 와중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죽는 것보다 전장이 훨씬 나왔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입대한 지 이틀 만에 승선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최후까지 진지를 사수할 임무를 강제로 부여받고 몸이 묶여 버린 인민군 중에는 용케 살아남은 이도 있었다.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어린 병사는 포성에 고막이 터진 듯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그 병사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는 고개를 돌렸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마주 보고 싶지 않았다.

죽음을 강요당한다는 것, 공격하지 않으면 총살당한다는 것, 삶과 죽음을 넘어 오로지 상사의 명에 복종한다는 것. 그러한 것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는 잘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¹⁵⁾

제주. 한숨 속에 그 이름을 뇌까렸던 밤이 떠오른다. 퇴각하는 적을 쫓아 추격전을 벌이다가 서울 외곽의 공동묘지 근처에서 맞이했던 그 밤, 방어와

제주도에서는 4·3의 마무리 토벌을 위해 주둔하던 해병대 신현준 사령관이 제주 지구계엄사령관을 겸임하였다. 정부는 7월 16일 제주주정공장에 육군 제5훈련소를 설치해 신병 양성에 나섰다. 8월 3일 중교생으로 조직된 학도돌격대가 결성되었고, 이들을 비롯한 제주도 청년들 3,000명이 8월에 해병 3·4기로 지원 입대하였다. 이들은 9월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서울 탈환에 나섰고, 9월 27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렸다.(박찬식, 「근현대사」, 『제주시오십년사』 장권, 제주도, 2005, p. 386)

15) 고은주, 앞의 책, pp. 85-86.

휴식을 위한 참호를 파다가 그는 중대장이 선임 장교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중대원 모두가 제주 출신이라 처음엔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그동안 적과 싸우는 모습을 지켜본 결과 이제야 안심이 된다는……。 그토록 지독한 불신에 맞서느라 비참하고 허망하게 스러진 목숨들이 떠올라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밤처럼 한숨 속에 불러 보는 이름, 제주. 저 섬을 생각하면서 이 병사들은 앞으로도 적이 아닌 불신과 싸워야 할 것이다. 죄 없는 제주 사람을 학살한 바로 그들을 위해 거듭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만 할 것이다.¹⁶⁾

‘그’가 속해 있는 부대가 104고지를 점령했을 때, ‘그’는 이미 수많은 시체를 겪은 후였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적의 모습은 포성에 고막이 터진 어린 병사였다. 그러나 적은 인민군, 혹은 토벌대, 서북청년단에 속해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이념 혹은 국가의 이름으로 다 가선 존재들이다. 개인을 의식하게 될 때 감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살아 남기 위한 전투 속에서 적의 개인적 존재를 의식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

해병대 삼천 병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적은 타지역 사람들의 제주인에 대한 지독한 ‘불신’이다. ‘빨갱이’라는 장막을 쳐놓고 편견 속에서 제주인들을 바라보며 재단했던 완강한 육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삼천 병사는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불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빨갱이 섬’으로 낙인찍은 제주가 거꾸로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제주청년들은 전쟁 속에서 ‘빨갱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다.

모병관을 따라 트럭에 몸을 싣고 떠날 때에도, 4기생의 집결지인 제주읍 주정 공장에 도착할 때에도, 해병대 사령관 앞에서 입대 선서를 할 때에도, 그는 자신을 떠미는 힘의 실체를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동문통의 환송 인파를 헤치고 이곳 부두까지 행진해 온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입대만이 가족의

16) 위의 책, pp. 110-111.

안전을 위하고, 고향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했지만 그 길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¹⁷⁾

그러나 죽음의 불씨는 1년 만에 되살아났다. 전쟁이 시작되고 전황이 나빠지자 정부는 좌익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검속한다는 구실로 전국적으로 무차별 연행과 학살을 자행했다. 제주도에서는 총파업에 가담했던 사람, 4·3 때 가족 중 누군가가 죽은 사람,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모두 잡아들였다. 게릴라와 토벌대를 피해서 동굴에 숨었다가 정부의 약속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한 예비 검속자들 중 많은 이들이 집단 총살되거나 수장됐다는 소문이 바람을 따라 그에게도 들려왔다. (...) 소문이 사실이라면 5백 구의 시체가 깔려 있을 바다를 이 군함은 헤쳐 왔다. 배는 지금쯤 섬보다 육지에 더 가까워졌을 것이다. 섬에 남아 있는 가족들 모두 무사하겠지. 이제 내가 이렇게 군인이 되었으니 역울한 누명을 쓸 일은 없겠지. (...)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그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공권력에 의한 집단 학살과 전쟁의 광기가 얼마나 닳았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도 그는 알 수가 없다.¹⁸⁾

제주청년들의 해병대 지원은 또 다른 이름의 대살(代殺)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좌익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예비 검속한다는 구실로 총파업에 가담했던 사람, 가족 중 누군가가 4·3 때 죽은 사람, 게릴라와 토벌대를 피해서 동굴에 숨었다가 정부의 회유에 의해 내려왔던 사람들까지 잡아들였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많은 이들을 집단 총살하거나 수장함으로써 제주인들의 희생은 더욱 많은 숫자로 늘어났다.

당시 제주도민이 겪었던 사건을 연유로 제주도민을 보는 정부의 불신과 제주인의 국가권력에의 불신은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됐다. 제주도민들은 4·3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채, 제주의 비극적인 역사의 표정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삶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17) 위의 책, p. 20.

18) 위의 책, pp. 44-45.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당한 이들을 대신하여 예비 검속된 이들, 이들이 다시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원한 병사들. “살아서 고향을 찾는 것은 수치요, 배신이 될 수도 있는”¹⁹⁾ 제주를 떠난 청년들의 운명을 작가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사의 시간 순으로 담담하게 서술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남은 자의 후손, 즉 전쟁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선택받은 세대는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선조들이 지키고자 한 삶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다. 작가는 현대사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윗세대의 이야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소통의 장 안으로 끌어들이며 전세대와 후세대를 연결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3-2. 비극적인 가족사와의 만남

또 다른 작중화자 ‘나’는 법대를 졸업한 뒤 국책 은행에 다니는 서른세 살의 전문직 여성이다. 그녀는 일에 있어서 오차를 용납 못하는 확실한 성격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선을 분명히 긋는다. 안정된 경제력을 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나’는 가족과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유별난 집착에 염증을 느끼며 자라왔다. 범조인이 되길 바랐던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연극에 대한 욕망을 채우지 못해 자괴감을 갖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런 그녀가 연극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현’이라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결혼할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도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낳고자 하는 욕망에 빠진다.

그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아버지의 외도로 맞아들인 이복 언니의 존재가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도덕성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되었고,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자하는 노력 없이 아버지 세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사는 것이다.

19) 위의 책, p. 162.

“몰랐느냐? 그때, 사삼 때, 너희 할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 너희 어머니 삼촌들이 대신 죽었을 거다. 그랬으면 너희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도 못했을 거야. 당장 나오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죽인다고 했다는 애기, 못 들었느냐?”

“아뇨, 그런 얘기들,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어요. 어른들은 그런 옛날 얘기들은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물어봐도…….”

하지만 정말 궁금해서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던가. 슬쩍 던져 보는 물음에 은근히 피해 가는 방식으로 어른들과 우리는 과거를 회피해 왔을 뿐이었다. 4·3이니 6·25니 하는 날짜들이 외할아버지의 죽음이나 큰아버지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고 사실 그다지 관심도 없었다.²⁰⁾

우리 현대사가 맞닿아 있는 현실을 작가는 작중인물의 발언을 통해 전하고 있다. 사건을 겪은 어른들은 물론이고, 선조들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후세대들 모두가 과거를 서로 회피하고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는 현실, 또한 형식적인 물음이나 대답으로 일관할 뿐 실제로 별다른 관심도 없다는 현재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작가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으로 인간의 역사와 생명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소설이 전개되면서 비극적인 가족사가 하나씩 드러난다. 오사카에서 만난 작은외할아버지로부터 외할아버지가 4·3 때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이복 언니로부터는 아버지가 4·3 때 가족을 살리기 위해 토벌대에 가담해 죽창으로 양민을 찢어 죽인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삶의 바닥에서 스스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며, 이념을 선택하기는커녕 무조건 주어진 이념에 순응해 와야 했던 세대를 이해하는 일은 온전히 후세대의 몫이다.

그러나 나는 꿈을 이루기는커녕 나만의 꿈을 제대로 갖지도 못했다. 되려 이렇게 맹목적으로 배 속 아이에게 집착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맹목적인 자

20) 위의 책, pp. 51-52.

식 사랑을 이어가려 하고 있을 뿐. 이것도 하나의 꿈이라면 그야말로 맹목적이고 지나치게 단순한 욕망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그 지옥 같은 일들을 겪으며 맹목적으로 살아남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나 어찌면 그 모든 것들은 맹목적이기에 더욱더 순수한 열망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 있다. 학도병이 되어 난생처음 고향 제주도를 떠나면서, 2주 만에 인천 상륙 작전에 투입되면서, 두 형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때마다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는 스무 살 청년. 그때 그 청년이 살아남은 결과로 나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²¹⁾

서로 무관해 보였던 ‘나’의 현재와 아버지의 과거는 ‘나’의 배 속에서 꿈틀대는 생명에 대한 욕망, 아무렇지도 않게 죽음을 당했던 전쟁의 비참한 상황과 병치되면서 ‘실존’의 문제를 짚어낸다.

가족의 대살을 피하기 위해 게릴라와 무관한 데도 불구하고 외할아버지가 총살을 당한 과거. 어쩔 수 없이 양민 학살에 가담하고, 6·25가 발발하자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한미연합 해병대에 자원해서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고, 전쟁의 와중에 두 형을 잃은 아버지의 상처. 삶과 죽음을 오가며 전쟁의 비극을 목격했던 아버지의 과거를 알아가게 되면서 막연히 자유로운 삶을 지향했던 ‘나’는 삶의 무게와 가족애에 대해 깨닫게 된다. 그 때문에 아기에 대한 막연한 자신의 욕망을 확인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3-3. 생명의 가치와 세대간의 연대

소설 속에서 작중화자 ‘나’가 말하듯이 화석으로 굳어서 전설처럼 여겨졌던 이야기가 현재 자신의 삶을 건드리면서 살아나는 순간, 낯선 이야기들은 자신의 삶과 두렵도록 질긴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운 때도 많았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21) 위의 책, pp. 239-240.

살아남았고, 그래서 너도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느냐. 전쟁 기념관 회랑에 늘어진 전사자 명비에 적혀 있던 수많은 이름들을 봤지? 전사자와 생존자의 갈림길은 정말이지 한순간에 결정되는 거였다. 세상일은 어쩌면 모두 어떤 한순간의 선택에 좌우되는 건지도 몰라. 나는 네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믿는다.”²²⁾

법도 재판도 없이 이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세상이었다. 거역하면 죽고 복종하면 살아남는 세상이었다. 수시로 주인이 바뀌는 세상에서 복종의 대상은 매번 달라졌다. 아군, 적군, 반동 등의 단어가 동족끼리의 싸움 속에서 난무했다. 적과 나의 구분 자체는 불필요한 것이었고, 그러한 구분은 깃발이나 표식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전쟁 속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였다.

그저 살아남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그’가 막내딸인 ‘나’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치욕적인 순간들을 지나왔는지 전쟁 기념관을 다녀와서 말을 하는 장면이다. 이런 아버지 앞에서 그녀는 아이는 낳고 싶지만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가족을 위하여 살아남았고, 마치 삶의 목표가 자식들에게 있는 것처럼 전쟁 이후의 삶을 꾸려왔다. ‘그’는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를 극복하기 위하여 철저히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자신의 가족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고, 그 자식들만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겪지 않도록 평화로운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그’가 선택한 상처의 극복방법이다. 가족을 위하여 제주를 떠나 부산의 시장통에서 온갖 고난을 참으면서 살아온 자신의 구부러진 인생을 딸에게는 되물림해주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기에 딸이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도 오사카 할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전사한 형들의 아들들을 거두어 독립시키고 결혼에 실패한 큰처제의 딸도

22) 위의 책, p. 154.

말아서 키워 주고……. 그밖에도 한두 해씩 우리 집에 머물던 친척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어쩌면 그런 일들,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관습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러한 가족에 대한 애정 때문에 내 배 속의 아이도 지금껏 모른 척하시는 거겠지.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틀림없이 사랑해 주시겠지. 나는 그렇게 마음대로 믿어 버린다.²³⁾

‘아기’가 자신에게 찾아오면서 그녀의 가족에 대한 생각은 변화하게 된다. 이복 언니와 아버지, 작은외할아버지 등을 통해 알게 된 비극적인 가족사를 스스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삶을 살고 싶어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버지의 살아남기 위해서 치욕을 이겨낸 삶을 이해하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맹목적인 자식사랑이나 인생을 이어나간다고 보다는, 가족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생명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실적인 조건 안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아이에 대한 욕심 또한 삶의 욕망과 맞물려 구체적으로 강화된다.

그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왜 가야 하는지는 알 것 같다. 가족, 그들을 위해 무조건 어디든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어디선가 죽게 된다고 해도 상관없다. 가족이 살아남는다면 그는 결코 죽는 것이 아닐 것이다.

가족이란, 나 대신 죽기도 하고 나 대신 살기도 하는 존재. 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 그는 2년 전의 대학살에서 그 사실을 배웠다. 가족 중에는 한 명이라도 한라산으로 도피하면 남은 가족을 대신 죽었던 이른바 대살(代殺). 그 대살을 자행했던 이들의 명령에 따라 그는 이렇게 가족을 위해 죽으러 간다. 그가 죽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²⁴⁾

23) 위의 책, pp. 250-251.

24) 위의 책, p. 118.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맹목적인 수밖에 없었던 ‘그’의 행보는 가족과 ‘그’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넓고 어두운 삶의 바다를 가족이라는 지푸라기에 의지해서 헤쳐 온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내던질 수 있었기에, 그 삶이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겪었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는 남아 있는 삶을 다시 또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신들의 황혼』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 세대의 무거운 삶이, 8·15나 6·25와 같은 숫자들과 자신들을 좀처럼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는 후세대의 삶에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한 가족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가족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만든다. 가족의 내력을 통해서 자신의 뿌리가 되어온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현재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며 가족 구성원들을 만나게 하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과거 부모의 세대를 신들의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은 현대사의 단절을 한 가족의 역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을 살아남게 만드는 원동력도 가족이며, 역사 속으로 밀려들어 가는 원인도 가족이다. 가족의 굴레는 피비우스의 띠처럼 그들의 삶을 감싸고, 그들이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가족 속에서 하나의 점이 되어 역사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가치가 지극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개인의 힘겨운 역정을 기록하고, 현재를 살고 있는 딸의 삶과 아버지의 삶을 엮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탐색해나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들의 관계맺음과 고뇌는 오늘을 사는 이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들의 삶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통의 끈으로 가족은 존재하는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고은주의 장편소설 『신들의 황혼』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들의 황혼』에서는 주제를 조직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설화와 아버지의 과거 역사, 현대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다층적 플롯이 사용되었다. 설화-과거-현재의 삼중으로 되어 있는 작품의 구조가 역사와 현재, 전세대와 후세대의 소통과 결합을 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설문대할망 설화를 삽입한 이유는 할망이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를 놓는 화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역사에 무관심한 후세대와 역사의 질곡을 헤치며 살아온 전세대의 소통을 시도하는 중요한 단서로 기능하고 있다.

셋째, 국가권력에 의해 반세기 동안 오인된 역사였던 4·3이 이 작품 속에서 단순히 제주도라는 특정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회고하고 진상을 추적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 등지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실체로 재조명되었다.

넷째, 가족의 소통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의미 있게 탐색되었다. 현대사가 맞닿아 있는 현실을 한 가족의 개인 역사를 찾는 과정을 통해 그려낸 이 작품은 가족이라는 굴레가 역사를 이루는 실체로서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볼 때 『신들의 황혼』은 한 가족의 삶의 역사를 현대사와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4·3문학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후세대의 고민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역사의 소통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바탕에 가족이라는 끈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 핵심어: 4·3문학, 설문대할망 설화, 『신들의 황혼』, 현대사, 가족, 소통, 다층적 플롯, 제주도

<참고문헌>

- 고은주. 『신들의 황혼』. 문이당, 2005.
- 김동윤. 「4·3문학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각, 2006.
-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 박찬식. 「근현대사」. 『제주시오십년사』~장권, 제주시, 2005.
- 이성준. 「설문대할망 설화연구」. 『국문학보』~10호,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1989.
- 허 춘. 「선문대 할망 설화 논고」. 『한국문학의 통시적 성찰』, 집문당, 1993.
- 현기영. 「4·3을 탐구하면서 재발견한 몇 개의 화두들」. 『제주작가』~4호, 실천문학사, 2000.

<Abstract>

The history and reality communicated through the tale and family

- A treatise on the novel of 『Dusk of Gods』 written by Ko Eun-Joo

Kim Soo-mee

The 4·3 literature faces a critical situation has to grope a new intention. So, 『Dusk of Gods』 written by Ko Eun-Joo is noteworthy work in that shows a new aspect of 4·3 Literature. It makes a communication between the history and the reality through the tale and family.

The contents of a discussion for the novel of 『Dusk of Gods』 are as follows.

First, the work of 『Dusk of Gods』 uses a multilayer-plot which treats a tale, the past affairs of father, and the life of modern womankind in order to show the theme systematically. The triple structure of 'tale-past-present' operates effectively in making a understanding and combination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past generation and present generation.

Second, we can find the reason why the writer insert the tale of 'Seolmoodae Grandmother'. The tale has a story of construction between a land and island. That structure functions as a important clue in connecting the old-generation who's lived in fetters of history with the new-generation who's indifferent to a history.

Third, this work doesn't simply express the tragedy in Jeju or trace the truth of 4·3. For half a century, 4·3 is misconceived by the state power. In this work, 4·3 is recognized as a entity of contemporary

history continu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Fourth, I observe the communication in family and the value of life. This work describes the reality in the contemporary history through the process of seeking the individual history in one family. As well, it proves that the bonds of family is not a their own existence but an element of history.

Thus, the work of 『Dusk of Gods』 displays a new prospect in 4·3 literature through the systematic connection a life and history of one family with the contemporary history. Also, it leads the source of thinking of contemporary generation. Like that, this work shows that there is a family as a fundamental element in going forward to the communication with a history.

- Keywords: the 4·3 literature, a tale of 'Seolmoomdae Grandmother', 『Dusk of Gods』, a contemporary history, family, communication, multilayer-plot, Jejudo(Jeju island)